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보 도 자 료

보도

2021. 6. 15(화) 16:00부터

배포

2021. 6. 15(화)

내용문의

이경수 교수(880-1941)  
석승훈 교수(880-2552)  
황현아 연구위원(3775-9047)  
박소정 교수(880-8085)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115)

총 6매

## 보험연구원 · 서울대학교,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공동세미나 개최

### 모빌리티의 변화가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하여 6월 15일(화) 오후 3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함
- (주제발표 1) 이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자율자동차 기술 및 현황에 대한 소개와 전망을 제시하였음
  - (자율주행)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임
  - (기술 개발과 투자) 자율주행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도 자율자동차 시스템 기술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다양한 자율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율자동차뿐 아니라 Lyft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연결이 확대되고 있음

○ (현황)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은 현실이 되고 있음

- Baidu Apollo는 베이징에서 완전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독일도 내년부터 세계 최초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였음

○ (기술 전망) 하지만 자율주행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며,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자율자동차 전문 기업과 자동차 업체 간의 괴리도 상당하며 자율자동차 서비스 기업도 없는 상태임. 학계에서의 융합 기술 연구도 부족함. 자율자동차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주제발표 2) 석승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이라는 주제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대한 통상적 논의에 덧붙여 제조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함

○ 자동차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 책임에서 제조사 책임으로 이전됨

- 이에 따라 종전의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통상적인 논의에 따르면, 운전자 중심의 보험에서 제조사(자동차 회사나 더 나아가 이동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보험으로 이전되며, 통상적인 자동차 보험이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임.

- 이런 통상적 논의에 덧붙여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음

○ 제조사가 사고의 피해에 대해 보험의 방식이 아니라 워런티(품질보증)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 자율주행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제조사가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때에는 제조사가 보험사에게서 보험을 구매하는 것보다 스스로 보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그 결과, 운전자에게는 워런티의 형태로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함. 이때 운전자는 제조사로부터 워런티를 구매하게 되며, 이는 종전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대체하게 됨. 이러한 현상은 테슬라가 테슬라보험을 판매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

□ (주제발표 3)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 D.N.A(Data, Network, AD)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모빌리티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였음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로 AI, Data, Network를 꼽을 수 있음

- 자율주행차(AV),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선박(AS)\* 등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connected)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는 AI, Data, Network를 핵심 요소로 함

\*AV: Autonomous Vehicle, UAM: Urban Air Mobility, AS: Autonomous Ship

○ (AD)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제도는 AI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제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미래 모빌리티의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ADS)\*은 AI의 일종인바,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음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 최근 독일 및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과정을 보

면, AI 윤리기준이 자율주행차 윤리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초로 자율주행차 법제도가 마련되는 등, AI 관련 규범이 모빌리티 관련 규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 및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Data)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 방대한 모빌리티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모빌리티 사고 관련 위험의 인수, 피해 보상 및 구상 등 보험회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인 DSSAD 및 EDR 기록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접근 권한 마련이 필요함

\*DSSAD: 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EDR: Event Data Recorder

○ (Network)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 인수 여부 및 구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율주행차 관련 책임법제는 주로 보유자의 책임(운행자 책임)과 제작사의 책임(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음

- 커넥티드 기반의 자율주행차 및 관제시스템을 필수로 하는 UAM 등 미래 모빌리티가 상용화되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위험이 시스템 오류 위험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제발표 4)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자동차와 보험 가치사슬 변화’ 라는 주제로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과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모빌리티 보험의 가치사슬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차량 제조사들이 업무대행대리점(MGA)의 형태로 보험가치사슬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

- (모빌리티 산업 구도의 변화) 빅블러 현상과 운전 주체의 변화로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차량 제조업자들이 차량 공유 플랫폼, 충전 네트워크, 차량 리스사 등 차량 제조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으로 역할을 확대 중임
- (Embedded Insurance) 다양한 영역에서 제품의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보험(Embedded Insurance)을 출시하면서 보험 판매 채널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음
  - (판매 채널)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 보험업 규제까지 받는 원수보험사가 될 이유는 없으므로 이들은 주로 판매 채널의 역할만 함
- 자율자동차의 경우 단순한 판매 채널의 역할 이상을 할 수 있음
  - (위험평가) 급변하는 위험의 성격으로 인하여 위험 평가 및 인수 역량에 있어서 보험사보다 제조사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음
  - (위험분담) 자율자동차의 경우 제조물 책임과 운전자 책임이 애매모호할 수 있음
  - (데이터 관리와 활용) 사고 데이터의 활용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를 늘릴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제품 생산에도 사고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MGA)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이 위험의 인수기능을 포함한 지정 대리인인 MGA(Managing General Agency)의 형태로 보험가치사슬에 진입하고 있음
  - 테슬라, 포드, 다임러, 도요타 등 다수의 차량 제조사들이 MGA사를 설립하였음

※ 붙임 1)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공동세미나 개요 1부  
2) 발표자료 2, 3, 4 각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공동세미나 개요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 산업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위험의 속성도 변화하고 있기에 그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포럼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읽고, 그로 인해 변화하는 위험의 속성과 보험 계약, 보험 산업 가치 사슬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5:00 ~ 17:10
- 장 소 : 서울대학교 58동 1층 수펙스홀 (유튜브에서 포럼 중계)
- 주 최 : 보험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증권금융연구소
-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5:00 ~ 15:05 (05분)	인사말씀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15:05 ~ 16:25 (80분)	주제발표	발표 1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 이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발표 2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 - 석승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발표 3 모빌리티 시대 보험 제도의 과제: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4 자율주행차와 보험 가치 사슬의 변화 -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6:25 ~ 17:05 (40분)	토론 및 질의응답	사 회 :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토 론 : 김일평 (삼성화재 상무) 노윤선 (다리소프트 대표)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가나다순) 질의응답 : 발표자 및 토론자
17:05 ~ 17:10 (5분)	맺음말	